

## 역사드라마는 왜 로맨스를 필요로 하는가 –〈미스터 션샤인〉(2018)을 중심으로

양근애\*

1. 들어가며
2. 신분 격차로 인한 자기부정성과 탈주
3. 실패한 역사와 비극적 사랑의 병치
4. 역사와 로맨스의 결합과 해석의 틈새
5. 나가며

### 국문초록

역사드라마에서 기록의 중요성이 약화되면서 다른 장르와의 결합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역사드라마에서 로맨스가 다른 어지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역사드라마가 취택하는 역사적 사건의 속성과 사랑의 모티프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리고 사랑과 연애의 서사가 역사효과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미스터 션샤인〉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미스터 션샤인〉은 김은숙 작가가 처음으로 쓴 역사드라마로, 의도적으로 재배치된 역사와 김은숙 작가 특유의 로맨스 문법이 결합되어 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실패한 의병 운동은 자기부정성에 기반 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과 병치된다. 일본 제국주의의 폭압성과 조선의 독립을 다루고 있는 이 드라마는 주요 인물과 사건을 허구적으로 배치하여

---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사랑의 욕망을 애국에 대한 정념으로 비약시킨다. 〈미스터 션샤인〉에서 로맨스는 역사적 사건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촉매 역할을 하며 문화적 기억을 재구성한다.

역사드라마에서 로맨스라는 가공의 플롯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역사 속에 놓인 인간의 삶을 성찰하도록 이끈다. 개인의 내밀한 감정은 역사의 재현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이 논문은 역사드라마와 로맨스의 관련 양상을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하는 첫 시도로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역사드라마, 로맨스, 미스터 션샤인, 역사효과, 연애의 자기부정성, 문화적 기억, 정념, 감정구조, 국가, 애국심)

## 1. 들어가며

“이 드라마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창작된 이야기이며 일부 가상의 단체와 인물을 다루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텔레비전 역사드라마가 시작될 때 흔히 볼 수 있는 자막이다. 역사드라마는 극문학이 가지고 있는 허구성이 당연히 배태되어 있음에도 역사의 사실적 재현 여부로 인해 정체성을 의심 받는다. ‘정통사극’, ‘팩션사극’, ‘퓨전사극’과 같은 명명은 사실성에서 멀어지고 있는 역사드라마의 자기 응시를 보여준다. 특히 ‘판타지’를 중요한 특징으로 삼는 2010년대 텔레비전 드라마의 경향성을 생각해볼 때, 역사드라마에 기입되는 상상의 문제는 더 이상 특이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드라마에서 여전히 사실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나온 역사에 대한 의식이 곧 현재의 공유 기억을 만든다고 믿는 대중의 정서적 감응 때문일 것이다.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역사의 다양한 효과를 분석한 책에서 볼 수 있

듯, 많은 역사학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역사의 위력은 크다.<sup>1)</sup> 특히 텔레비전은 강렬한 시각적 자극과 강력한 서사를 통해 대중들이 역사에 매혹되게 만든다.<sup>2)</sup> 역사의 대중적 소비 방식을 두루 살핀 그루트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치게 학문적인 역사에는 흥미를 잃었지만,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널리 퍼져 있다고 느끼며 잘 짜인 내러티브보다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설명을 듣기를 더 선호”한다<sup>3)</sup>고 언급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대중문화에서 재현되는 역사는 비학문적인 대중의 역사 이해 방식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기록된 역사든, 가능성으로서의 역사<sup>4)</sup>든, 상상으로서의 역사든 역사 를 소재로 하고 있는 역사드라마는 과거의 시공간과 있었음직한 사실에 대한 긴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문제는 실재 여부와 상관없이 재현된 역사가 얼마나 진실성을 확보하고 있느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역사효과는 역사의 사실성보다 드라마의 완성도를 통해 발휘되며 사건, 플롯, 캐릭터 등의 요소는 역사의 진실다움에 복무한다.

주지하다시피, 2000년대 이후 텔레비전 역사드라마는 사료보다 작가

1) David Cannadine (ed.), *History and the media*,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07.

2) Taylor Downing, “Bringing the past to the small screen”, David Cannadine (ed.), *History and the media*,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07, pp.9-10. 특히 전쟁을 다룬 역사물에서 이와 같은 경향이 두드러진다.

3) 제롬 드 그루트, 『역사를 소비하다』, 이윤정 역, 한울아카데미, 2014, 22쪽.

4) ‘가능성으로서의 역사’는 필자가 〈대장금〉에 관한 논문에서 처음으로 쓴 용어이다. 이후 많은 논자들이 인용 없이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문제는 미시사에서 부각되는 ‘가능성으로서의 역사’라는 개념을 있었음직한 일을 허구적으로 그려낸 역사로 잘못 쓰고 있는 경우이다. ‘가능성으로서의 역사’는 사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이 드러나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두텁게 읽어내고 다르게 읽어내면서 역사성을 획득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대장금〉이 종종 실록의 기록을 토대로 ‘실마리 찾기’를 하는 부분을 분석한 것은 이 때문이다. 양근애, 「TV 드라마 〈대장금〉에 나타난 ‘가능성으로서의 역사’ 구현 방식」, 『한국극예술연구』 28, 한국극예술학회, 2008.

의 상상력을 극대화하면서 역사드라마의 장르적 외연을 확장시키고 있다.<sup>5)</sup> 〈다모〉(2003), 〈대장금〉(2003-2004), 〈바람의 화원〉(2008), 〈성균관 스캔들〉(2010), 〈해를 품은 달〉(2012) 등 2000년대 이후 역사드라마는 사실로서의 역사보다 이야기로서의 역사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중에는 실제 역사를 의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드라마의 시공간적 배경으로서 역사를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향은 역사드라마가 정치드라마로서 가지고 있는 위상을 약화시키고 현대 사회가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과거성'의 이해와 활용에 주목하도록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2010년대 이후 역사드라마가 다른 장르보다 로맨스와의 결합 양상이 두드러지는 측면을 징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8년에 방영된 〈미스터 션샤인〉은 과거의 역사를 문화적 기억으로 재구성하고 그 가운데 인물 간의 로맨스를 전면에 배치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최근 역사드라마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이 드라마는 역사드라마로서는 드물게 대한제국 시기를 조명하고 있고, 특히 로맨스를 격변기 역사를 살아가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추동하는 핵심 요소로 다루고 있다. 이 글의 관심인 '역사드라마는 왜 로맨스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첫 번째 연구 대상으로 〈미스터 션샤인〉을 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스터 션샤인〉은 로맨틱 코미디 집필에 능한 김은숙 작가의 첫 역사드라마로 주목받았다. 〈미스터 션샤인〉은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 목록에서도 이질적인 작품으로 취급된다. 현재를 배경으로 남녀 간의 로맨스에 주력해오던 김은숙의 드라마는 전작인 〈태양의 후예〉와 함께 '네

---

5) 윤석진, 「2000년대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장르 변화 양상 고찰 1」, 『한국극예술연구』 38, 한국극예술학회, 2012; 윤석진, 「2000년대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장르 변화 양상 고찰 2」, 『비평문학』 48, 한국비평문학회, 2013.

이션’ 드라마로서의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로맨스를 (불)가능하게 하는 세계가 주변 인물과 사회에서 국가로 확장되면서 국가 간 분쟁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은 인물이 개인의 욕망을 어떻게 통제하고 대의에 복무하도록 만드는지를 그려냈기 때문이다. 특히 〈미스터 선샤인〉의 마지막회에 등장하는 “이건 나의 히스토리이자 나의 러브스토리요.”라는 유진 초이의 대사는 이 드라마가 취한 태도를 여실히 드러낸다. 역사적 소용돌이에 휘말린 인물의 로맨스는 개인적인 차원을 비약하는 질문과 조우하고, 대중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 속 개인을 조망하게 된다. 역사드라마에서 로맨스가 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지, 또 ‘히스토리’와 ‘러브스토리’의 병치가 드라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역사드라마의 가치와 효과를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일제 강점기 조선을 다룬 역사드라마들이 식민지 조선의 근대적 풍경을 그려낸 것과는 다르게, 구한말 대한제국시기를 다룬 〈미스터 선샤인〉은 방영 당시의 반일 감정과 3.1운동 100주년을 앞둔 시기적 선택으로 문화정치적 의미를 획득했다. 기획의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9주년을 맞는 2018년 방송예정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은, 미국의 이권을 위해 조선에 주둔한 검은머리의 미 해병대장교 유진 초이 (Eugene Choi)와 조선의 정신적 지주인 고씨 가문의 마지막 핏줄인 애신 애기씨의, 쓸쓸하고 장엄한 모던 연애사다.”<sup>6)</sup>라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증 논란에 시달릴 만큼 실제 역사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었고 로맨스 서사가 부각되면서 역사인식의 희박함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430억을 들인 대작이자, 넷플릭스에 방영되면서 국경을 넘어 한류 드

---

6) 김은숙 작, 이응복 연출, 〈미스터 선샤인〉, tvN 공식 홈페이지.

[http://program.tving.com/tvn/mrsunshine/2/Contents/Html\(2020.4.12. 확인\)](http://program.tving.com/tvn/mrsunshine/2/Contents/Html(2020.4.12. 확인))

라마의 위치를 점했고, 시청률이나 화제성 면에서도 두각을 드러낸 만큼, 〈미스터 션샤인〉에 대한 그간의 연구 역시 이 드라마가 드러낸 성과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창윤은 〈미스터 션샤인〉의 역사 소환 전략을 ‘전경화’, ‘중경화’, ‘배경화’로 분류하고 실제 역사적 기록을 활용한 사실적 묘사, 역사기표의 활용을 통한 개연성 확보, 그리고 역사적 시간과 공간을 압축하여 1870년대부터 1930년대에 이르는 시간을 압축, 재배열한 과정을 상세하게 짚었다.<sup>7)</sup> 이와 같은 분석은 일종의 성공한 드라마로서 〈미스터 션샤인〉이 지난 전략을 알아볼 수 있게 하지만, 그것이 곧 역사드라마로서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영미의 언급대로, 이 드라마의 “단선적인 선악 구도와 성숙하지 못한 역사 인식은 기존의 보수적인 통념을 벗어나지 못한다.”<sup>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보다 연애물 취향이 강한 수용자들”까지 끌어들인<sup>9)</sup> 이 드라마의 저력은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가 줄곧 실험해 온 ‘대중 전략 극작술’<sup>10)</sup>이 이 경우에도 통했기 때문이다. 이 글이 주목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이다. 말하자면 김은숙 작가 특유의 로맨스 문법이 역사드라마의 향유 방식을 어떻게 바꾸어놓았는지, 이때의 역사효과는 방영 당시 현실의 어떠한 지점을 건드리고 있는지 좀 더 상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태양의 후예〉와 〈미스터 션샤인〉을 함께 놓고 국가가 개인의 감정 구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피고 있는 정혜경의

7) 주창윤, 「〈미스터 션샤인〉, 역사의 서환과 재현방식」, 『한국언론학보』 63(1), 한국언론학회, 2019.

8) 이영미, 「〈미스터션샤인〉 맥락 잡기」, 『황해문화』 101호, 2018, 274쪽.

9) 이영미, 「〈미스터션샤인〉 맥락 잡기」, 『황해문화』 101호, 2018, 275쪽.

10) 이다운, 「김은숙 텔레비전드라마의 대중 전략 연구」, 『한국언어문화』 65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8.

논문<sup>11)</sup>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그러나 이 논문의 말미에 제시되고 있는, 드라마를 통해 고양된 감정이 연대와 애도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를 환기한다는 해석에는 동의하기 힘든 지점이 있다. 특히 〈미스터 션샤인〉의 경우, 로맨스의 감정과 애국심을 등치시키고 민족의 실체를 동질화 시켜 호명하는 공동체를 배타적으로 설정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미스터 션샤인〉의 대중적 반향과 문화산업으로서의 의미를 짚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드라마의 역사드라마로서의 가치와 맹점을 비판적으로 파악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역사를 추동하는 힘으로 로맨스를 전면에 배치한 지점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 2. 신분 격차로 인한 자기부정성과 탈주

‘진’, ‘글로리’와 함께 ‘섀드엔딩’을 모토로 삼고 있는 〈미스터 션샤인〉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모티프는 필연적으로 작동된다. 꽃으로 사는 대신 불꽃이 되고자 하는 총 든 애기씨 고애신과 조선으로부터 벼림받고 미국인으로 살다가 조선에 온 유진 초이의 만남은 따라서 사랑의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사랑의 파국을 향해 가는 여정이다.

최근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로맨스 서사는 노스탤지어에 기댄 구성된 관념이라 할 만하다. 사랑에 대한 믿음 대신 탈신성화와 냉소에 기반 한 비혼과 비연애의 시대에 대중문화에 등장하는 로맨스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친밀성을 대리체험하게 하는 감정 산업으로 재생산 되고 있다. 예

---

11) 정혜경, 『2010년대 멜로드라마에 나타나는 국가와 개인의 감정구조』, 『대중서사연구』 25(1), 대중서사학회, 2019, 123-161쪽.

바 일루즈의 언급대로 후기 자본주의 하의 낭만적 사랑은 유토피아적 판타지이며, 자본주의의 형성과정은 감정문화의 형성 과정과 동궤에 있다.<sup>12)</sup> 사랑은 더 이상 특별하고 신비한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체계이자 상징적 코드라고 본 루만의 견해<sup>13)</sup>도 이와 다르지 않다.

‘낭만’을 중심 정서로 삼고 있는 〈미스터 션샤인〉의 로맨스도 이 자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김은숙의 드라마가 주력해 온 낭만적 사랑의 규율이 발견되며, 감정의 미학적 양식인 멜로드라마의 코드<sup>14)</sup>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신분제도가 임연하던 구한말의 시공간을 배경으로 기존의 남녀 관계를 역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드라마에서 선결 되어야 할 배경 조건이 지금-여기가 아닌 과거의 시공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신분제도가 살아 있는 시대로 이동하는 것은 신분 제약이 가져다주는 갈등을 드라마의 주요 플롯으로 배치하게끔 한다. 왕, 혹은 왕이 될 사람이 낮은 신분의 여성과 사랑에 빠지거나 자기 신분을 속이고 양반 행세를 했다가 폭로될 위기에 처하는 이야기 등은 역사드라마의 단골 소재였다. ‘동기 대 장애’는 드라마의 추진력을 확보하는 기본 방식이며 신분질서가 공고한 시대를 살아가는 주인공이 신분 격차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랑 앞에서 괴로워하는 이야기는 낯선 것이 아니다.

오사와 마사치는 정열적인 사랑의 서사에서 연애는 최종적인 충족을 스스로 부정한다<sup>15)</sup>고 말하고 있다.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결코 극복될 수 없다는 점이 서로를 욕망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이

12) 에바 일루즈, 『감정 자본주의』, 김정아 역, 돌베개, 2010.

13) 니클라스 루만, 『열정으로서의 사랑』, 정성훈·권기돈·조형준 역, 새물결, 2009, 21쪽.

14) 이정옥, 「멜로드라마, 도덕규범과 감정을 조율하는 근대적 상상력의 역설」, 『대중서사연구』 25(1), 대중서사학회, 2019, 15쪽.

15) 오사와 마사치, 『연애의 불가능성에 대하여』, 송태욱 역, 그린비, 2005, 15쪽.

다. 이렇듯 연애가 자기부정적인 구성을 취하는 이유는 사랑이 본질적으로 차이의 체험이기 때문이다.<sup>16)</sup> 사랑은 서로에 대한 정보를 매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모른 채로 시작되며 사랑으로 인해 자신의 타자성을 발견하게 된 상태는 서로의 거리를 인지하지 않을 수 없다. 〈미스터 션샤인〉의 두 주인공 고애신과 유진 초이는 서로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른 채로 지붕 위에서 마주친다. 이후 여러 차례의 확인 끝에 서로가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존재라는 환상으로 진입하는 사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유진과 애신을 가로 막는, 연애의 불가능성을 확인하게 하는 요소는 일차적으로는 신분 격차이지만 유진이 과거 노비였던 신분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 즉 미군 해병대위로서 일본 제국주의 앞에 놓인 조선의 질서 바깥에 존재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유진은 미국인 신분으로 조선에 왔기 때문에 경성에 사는 모두가 다 아는 애기씨를 몰라보며, 애신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방인과 나란히 걸으며 그의 세계에 이끌리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고애신이 학당에서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이미 그 언어를 선취한 유진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점은, 일 반적인 연애 서사의 신분 격차에서 남녀가 뒤바뀐 설정이라고 하더라도 애신을 주체적인 여성으로 해석하는 데 주저하게 만든다. 비록 ‘호강에 겨운 양반 계집’이라는 구동매의 말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애신이라고 할지라도 구한말 사대부 집안의 질서 하에서 행랑아범과 함안댁의 보살핌을 받으며, 이제는 조선에 온 미국인과 정혼자와 낭인의 보호까지 받는 고애신의 캐릭터는 일견 새로워 보이나 가부장적 보수성을 전혀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미스터 션샤인〉 9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유진이 애신에게 자신

16) 오사와 마사치, 『연애의 불가능성에 대하여』, 송태욱 역, 그린비, 2005, 25-26쪽.

이 조선에 있을 때 노비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 고백으로 인해 언 강 위에 선 두 사람이 나란히 걷던 장면은 두 사람의 거리가 멀어지는 장면으로 이어진다.(〈장면 1〉)



〈장면 1: 9회 1:08~1:11〉

애신: 궁금하오. 귀하의 긴 얘기가.

유진: 아마 내 긴 이야기가 끝나면 우린 따로 떠나게 될 거요.

애신: 어째서 그렇소?

유진: 조선을 떠난 건 9살 때였소 그저 달렸소 조선 밖으로 조선에서  
가장 먼 곳으로. 그런 내 앞에 파란 눈에 금발머리 선교사가 구  
세주처럼 나타났소 그의 도움으로 미국 군함에 숨어들었고 한  
열흘쯤 가면 되겠지 했는데 한 달을 갔소.

애신: 헌데 아홉 살 아이가 무슨 연유로

유진: “죽여라. 재산이 축나는 건 아까우나 종놈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  
니 손해는 아닐 것이다.” 그게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조선이오.

애신: 누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오.

유진: 상전이었던 양반이. 무엇에 놀란 거요. 양반의 말에? 아님 내 신  
분에? 맞소. 조선에서 난 노비였소 귀하가 구하려는 조선에는  
누가 사는 거요? 백정은 살 수 있소? 노비는 살 수 있소?

9회 마지막 부분에서 애신에게 던지는 유진의 말은 두 사람이 더 이상 ‘나란히 걸을 수 없음’을 확인하는 질문이었다. 연속극의 특성상 10회는 이 부분을 반복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잡고 있던 손을 놓고 돌아서는 애신의 모습을 비춘다. 그러나 로맨스의 문법을 확인시키듯, 이 사건은 두 사람이 각자의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에 대한 욕망을 증폭시키는 계기로 작동한다.

자기부정을 통한 사랑의 충족 불가능성은 애신과 유진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애신을 바라보는 정혼자 김희성과 애신이 구한 백정 출신 낭인 구동매의 사랑 역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태 그 자체가 자기 욕망이 다른 쪽으로 향하는 길을 막는다.

〈미스터 션샤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고애신, 유진 초이, 김희성, 쿠도 히나, 구동매는 모두 경계에 서 있으면서 그 경계를 탈주하고자 하

는 욕망을 지닌 인물들이다. 고애신은 구한말 귀족의 신분이지만 장포 수에게 총을 배워 의병에 가담하는 인물이고 유진은 조선 출신 미국인으로 조선에 돌아와 이방인으로서 조선의 운명 속에 들어가게 되는 인물이다. 김희성은 동경 유학 지식인이지만 ‘무용한 것들을 사랑하는’ 룸 펜 인텔리이며 쿠도 히나는 부왜인을 아비로 둔, 그러나 그 아비가 일본인과 결혼시킨 덕에 죽은 남편의 돈으로 조선에 돌아와 글로리 호텔의 사장이 된 인물이다. 구동매는 백정 출신으로 일본 무신회에 들어가 낭인이 되어 조선인을 위협하는 인물이 된다.

〈미스터 선샤인〉은 이 다섯 인물이 자기 세계의 질서를 외면하고 경계를 넘어서는 중요한 계기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부각시킨다. 신분의 격차로 대표되는 이들의 차이는 태생적 비애로 캐릭터를 지탱시키는 한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욕망을 강화시키며 사랑의 감정을 증폭시킨다. 그리고 이 사랑의 감정은 어느새 이 다섯이 만들어내는 중층적인 관계를 넘어 조선의 독립을 향한 마음으로 수렴되는 것이다. 주요 인물들 내면에 자리한 정념의 작동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사랑이 애국의 기폭제가 된다는 점은 여러모로 문제적이다.

### 3. 실패한 역사와 비극적 사랑의 병치

〈미스터 선샤인〉은 본래 2008년에 기획된 드라마로 알려져 있다. 당시의 기사를 살펴보면 “이국 땅 조선에 주둔한 벽안의 ‘서양 도깨비’ 미국 육군 중위 스티브와 조선총독부도 어찌 못하는 검은 눈의 명문대가 아가씨 정은교의 국경도 초월한 사랑, 은교의 정혼자이자 친일 후작의 아들 김희성과의 삼각관계 등을 다룰” 예정으로 1920~30년대를 배경으

로 한 32부작 한일합작드라마였다고 한다.<sup>17)</sup> 당시 스티브 역에 ‘석호필’로 유명해진 배우 웨트워스 밀러를 캐스팅할 생각이었다는 것을 보면 조선 노비 출신 미국인이라는 설정은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마 계획대로 2008년에 방영되었다면 2000년 이후 등장한 ‘모던 경성’을 조명한 역사드라마와 같은 궤에 놓이는 드라마가 아니었을까 싶다. 그러나 〈미스터 선샤인〉은 ‘의병’을 전면에 내세우며, 근대화 이후 경성에서 살아간 인물들이 아니라 대한제국기 조선을 삼키려는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의병들의 실패한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역사드라마에서 소환하는 역사적 사건은 제작 당시의 시대정신과 공유 기억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앞둔 시점에 만들어진 〈미스터 선샤인〉이 비록 실패한 역사이지만 항일이라는 주제를 내세운 의도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드라마의 초반부터 이완익으로 대표되는 친일 조선인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후반부로 갈수록 일본군의 폭력성과 잔인함이 스펙터클의 과잉으로 전시되면서 나약하고 착한 조선인과 잔인하고 야욕으로 가득 찬 일본인의 이미지가 이분법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패한 역사를 다루는 방식이 역시 실패할 것이 분명한 비극적 사랑의 전개와 나란히 진행된다는 점이다. 신미양요에서 을사조약까지의 역사적 사건이 재구성되는 시간과 고애신과 유진 초이의 사랑이 애국이라는 공통된 방향으로 수렴되면서 비극으로 치닫는 시간 사이에는 꽤 큰 간격이 존재한다. 드라마의 구성 시간(plot time)은 1902년부터 이지만, 연대기적 시간으로 보면 1871년 신미양요를 배경으로 삼아 시작되고 실제 드라마에 등장하는 풍속은 1930년대를 환기시키고 있다.

17) ‘석호필’ 밀러, ‘온에어’ 드림팀 차기작 주인공 물망, 『아시아경제』, 2008.5.16.

<http://cm.asiae.co.kr/ampview.htm?no=2008051522221324515>(2020.4.12. 확인)

〈미스터 선샤인〉의 사건 배치는 실제 역사적 사건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파편화시켜 재구성 한 것이다. 이를 ‘압축적인 재배열’<sup>18)</sup>로 보는 것은 아  
무래도 무리가 있다. 아직 일본 제국주의의 야욕이 드러나지 않은 대한  
제국 초기에 일본군과 일본인을 폭력적인 악으로 묘사하고 그들로부터  
조선을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모습은 논리적 비약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드라마는 왜 이러한 시간적 배치를 선택한 것일까.

〈미스터 선샤인〉에서 고애신과 유진 초이가 처음 만나는 장면은 지  
붕 위 암살 시도에서였다. 이 장면은 사대부 집안의 ‘애기씨’ 애신의 여  
성적 육체와 남성적 역할 사이의 탈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러나 이 암살 장면 이후 6회까지 고애신은 조선의 운명을 두고 미국  
과 일본이 어떤 다툼을 하고 있는지 중요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새로운 임무를 맡지 못하는 상태로 머문다. 그 시간을 채우는 내용은  
유진 초이와 영어 단어를 두고 친밀해지는 단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다. 그 과정에서 고애신과 유진 초이를 마음에 두는 인물들이 등장하기  
는 하지만, 다른 인물의 마음과 행동이 둘 사이를 방해할 정도로 크지  
는 않다. 오히려 고애신을 마음에 두고 있는 세 남자, 유진 초이와 김희  
성과 구동매는 적대감을 농담으로 흘려보내며 각자 고애신에 대한 마  
음을 키운다.

드라마의 후반부에 가면 의병의 활약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  
하고 그 과정에서 애기씨가 아닌 고애신의 활동이 그려진다. 그러나 로  
맨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애신과 유진 초이의 관계가 의병  
활동으로 대표 되는 애국의 과정과 병치 되면서 역사가 로맨스로 흡수  
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

18) 주창윤, 「〈미스터 선샤인〉, 역사의 서환과 재현방식」, 『한국언론학보』 63(1), 한국언  
론학회, 2019, 243쪽.

이 드라마의 18회는 이와 같은 인물 관계가 가장 극대화 되는 지점이다. 18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보호’일 것이다. 유진 초이는 끌려간 고애신을 ‘보호’하기 위해 미공사관에서 인계시키고 같은 논리로 고종은 고사홍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투옥 시킨다. 김희성은 모리 타카시의 의중을 알면서 헛소리로 대답하고 구동매는 이완익으로부터 애신을 보호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다. 그 과정에서 애신은 세 남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로부터 비껴나 있으며 미공사관에서 만년필과 지구본과 마트료시카를 신기해하며 구경하고 있다.

〈미스터 션샤인〉에서 조선인 노비 출신이자 미군 장교로 돌아온 유진의 행보는 꽤 의미심장하다. 봉건적 계급과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제국주의의 팽창과 식민화의 과정에서 경계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인물의 형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의 결단이 향하는 쪽이 역사에서 누락된 정치적 가능성을 지시함에도 불구하고, 유진은 일관되게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한 여인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하며 조선을 지키는 쪽으로 움직이는 자신의 행동을 사랑의 문제로 치환해버린다. “당신은 당신의 조선을 구하시오. 나는 당신을 구할 거니까. 이건 내 역사고, 난 그리 선택했소.”(23회), “애석하게도 그럴 시간이 없소. 사랑하는 여인을 구해야 해서.”(24회)와 같은 대사에서 볼 수 있듯, 유진은 애신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조선을 향한 길로 나아간다. 문제는 유진의 해바라기 같은 사랑 그 자체가 아니라 유진이 이와 같은 감정을 발설할수록 애신은 그 자신이 가진 능력을 스스로 발휘할 기회로부터 자꾸 미끄러지며 결국 보호 받는 자리에 안착하게 된다는 점이다.

마지막 회에는 애신이 ‘조선의 미래’인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데리고 평양행 기차를 타고 가는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이 나온다. 일본군에게 계획을 들키게 되자 애신은 유진이 아직 열차에 타지 않은 상태에서

기차를 출발시킨다. 가까스로 열차에 올라탄 유진이 애신에게 “훌륭한 대처였소.”라고 말하자 애신은 “난 어떤 훌륭한 미국인의 아내라.”라고 답한다. 애신을 향한 마음이 유진의 행동을 유발시켰으나 결국 애신 스스로 유진의 아내 자리에서 자신의 행동을 바라본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이들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낭만적으로 그려질수록 애국의 의미는 노스탤지어로 소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진이 목숨을 던져 일본 군이 탄 객차를 끊어내는 장면 역시 마찬가지다. 애신의 능력과 노력이 출중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유진을 비롯한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그 일을 해결한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미스터 선샤인”에서 구한 말은 고애신에게 새로운 자유와 기회를 줬다. 하지만 ‘미스터 선샤인’은 이 시대를 고애신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 기간처럼 사용한다., “여성의 매력으로 전개해나간 이야기가 결국 남성의 힘에 대한 이야기로 바뀐다. 외세에 대한 저항은 어느새 그 힘을 매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된다.”<sup>19)</sup>라는 비판은 같은 맥락에서 유효하다.

고애신이 곧 나라였다고 해석하는 기사가 등장할 만큼,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이 애신을 보호하는 자리에서 각자 최선을 다한다. 드라마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미국인이자 조선인’, ‘일본인이자 조선인’이 자신의 운명을 걸고 보호한 애신에게서, 근대초기 반봉건과 반제국의 충돌 속에서 보호 받아야 할 존재로 치환되었던 조선의 운명이 읽히는 것은 자연스럽다.

드라마의 중반 이후부터는 유진이 애신이 하는 일에 개입하게 되면서 황은산과 장포수를 위시한 의병들의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에피소드가

---

19) 강명석, 〈‘미스터 선샤인’, 결국 김은숙의 드라마〉, 『아이즈ize』, 2018.7.25.  
<https://www.ize.co.kr/articleView.html?no=2018072423047218533> (2020.5.10. 확인)

등장하기 시작한다. “자네가 진실을 밝힐수록 우리 조직에 위협이 된다.”는 전승재의 말과 “그가 선으로 움직이는 것은 명획하나 그의 선의는 조선을 위험에 빼드립니다.”라는 판단은 결국 애신이 유진을 총으로 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 지점에서 의병 운동이라는 거사를 향한 목적과 유진과의 사랑이라는 개인적 욕망이 교차하지만, 결국 이 문제를 돌파하는 것 역시 유진이다. 그가 김영주를 넘기면서 오해를 풀게 되고 오히려 은산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이미 얻었던 걸 몰라 지금은 잊었습니다.”-15회)

일부 해석대로 고애신이 조선이라면 유진은 미국 혹은 미국으로 상징되는 세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드라마의 볼거리를 담당하는 근대적인 문물들과 서양식 문화는 애신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포착된다. 애신이 유진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 그곳에서 공부도 하고 함께 나란히 걷는 상상을 하는 장면은 흡사 신소설의 계몽 논리를 보는 듯하다. “난 그곳에서 공부도 하오. 세계가 얼마나 큰지, 지구는 정말 둑근지, 별은 어디로 떠서 어디로 지는지.” 그러나 문명의 세계<sup>20)</sup>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꿈은 상상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조선은 미국의 보호와 도움 속에 서만 겨우 ‘헛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아직 세계의 크기조차 가늠되지 않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인가.

---

20) 16화에는 대낮에 일어난 일식 현상을 보고 “완익이 궁에 들어 흥한 징조다”라고 불길 해하는 고종의 대사가 등장한다. 문명과 야만, 계몽과 봉건의 논리를 담아내는 이 드라마의 (무)의식 역시 근대초기의 심상지리와 관련하여 비판할 지점이 있다.



〈장면 2: 16회 32:09~33:20〉

일본에서 헤어지기로 했으나 차마 미국으로 가는 배에 오르지 못한 유진이 무신회에 쫓기는 애신의 손을 잡고 미공사관으로 향하는 장면은 미국의 원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 사건으로 유진은 미 군 신분을 박탈당하고 징역 3년을 받게 된다. 3년 후 유진은 조선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의병에 가담하게 되며 드라마의 마지막은 유진의 활약으로 채워진다.

의병: 이길 수 있을까요?

은산: 글쎄 말이다. 그렇다고 돌아서겠느냐. 화려한 날들만 역사가 아니다. 질 것도 알고 이런 무기로 오래 못 버틸 것도 알지만, 우린 싸워야지. 싸워서 알려줘야지. 우리가 여기 있었고 두려웠으나 끝까지 싸웠다고.

마지막 회, 일본군에게 은신처를 들켜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결전을 앞둔 의병 대장의 대사는 이 드라마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나타낸다. 돌이킬 수 없는 실패한 역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뚜렷하다. 특히 드라마의 후반부로 갈수록 애국에 관한 주제 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실제 역사를 환기시키는 대목이 자주 등장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스터 션샤인〉은 20회에서 애신의 총에 이완익이 죽을 때까지만 해도 주요 인물들이 다 허구적으로 창조된 인물들의 이야기로 진행되었다. 이완익은 실존 인물 중에는 이하영에 가장 가깝지만 을사오적인 이완용을 상기시킬 수밖에 없는 이름이며, 드라마의 중반부까지도 이완익을 친일파를 대표하는 이완용으로 인식한 시청자들이 많았다. 방영 초기의 역사 왜곡 논란을 잠재운 이유 중에는 이 드라마가 시공간적 배경을 대한제국 초기로 취했을 뿐 실제 인물들을 가져와 쓴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있었다. 그러나 이완익의 죽음 이후 드라마의 후반부에는 실제 을사오적과 정미칠적이 등장하여 고종을 끌어내리는 등, 실존 인물들에 대한 조명이 두드러진다. 22회에는 이완용이 일본어 통역사를 대동하여 이토 히로부미를 만나고 도쿄 권업박람회에서 조선인을 전시한 사건이

나오며, 이 드라마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환기 시키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보다 역사적 상상력에 방점을 찍은 이 드라마가 돌연 실제한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장면 3: 24회 29: 50〉



〈사진 1: 영국 종군기자 맥켄지가 양평군 일대에서 찍은 의병대 사진〉

〈미스터 선샤인〉의 마지막 회에서 맥켄지가 의병 사진을 촬영하는 장면(〈장면 3〉)과 국사 교과서에 나온 잘 알려진 〈사진 1〉은 흡사하다. 마

치 이 장면의 역사효과를 향해 드라마가 달려온 것처럼, 사랑보다 뜨거웠던 애국심은 허구적인 인물들의 이야기에서 역사 속의 한 장면으로 전이 되면서 사실성을 겨냥한다. 그리고 애신과 유진의 비극적인 사랑은, 비록 실패했으나 역사 속에 오래 기억되는 이와 같은 장엄한 비극을 통해 비로소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 4. 역사와 로맨스의 결합과 해석의 틈새

방영 초기의 역사 왜곡 논란은 흑룡회를 무신회로 바꾸는 등, 제작진의 조기 진화와 후반부의 의병 사진으로 무색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미스터 선샤인〉이 로맨스와 역사적 사실의 결합을 위해 실제 역사를 의도적으로 재배치했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적이다. 신미양요(1871) 때 미국인은 들어오지 않았고 당시 의병들은 미국인에 대해 적대감을 갖지 않았으며<sup>21)</sup>, 의병을 비밀결사처럼<sup>22)</sup> 그려냈다든지 하는 왜곡의 문제와 아직 을사조약이 체결되지도 않았는데 일본인이 조선에 들어와 전횡을 일삼는다거나 1920~30년대 조선의 생활습속이 피상적으로 등장하는 등 역사드라마로서 일관된 원칙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군이 폭력적인 악으로, 미군이 중립적인 원조자로 그려지는 양상도 조선인의 비애를 강조하는 구실이 된다. 구한말부터 근대초기까지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1) 〈‘미스터 선샤인’ 보는 역사학자 “안타깝다”〉, 『노컷뉴스』, 2018.7.11.

<https://www.nocutnews.co.kr/news/4998610>(2020.4.12. 확인)

22) 김현주, 〈미스터 선샤인 (1): 계급과 민족의 교차로를 넘나드는 21세기형 신소설 서사〉, 『한국역사연구회-영상으로 보는 역사』, 2018.9.17.

<http://www.koreanhistory.org/6726>(2020.4.12. 확인)

식민지 근대화의 문제를 일원화 하고 그 속에서 살아간 조선인의 모습을 감정이라는 경로를 통해서만 드러낸 것은 아쉬운 지점이 아닐 수 없다.

앞서 말한 의병 사진은 로맨스로 무장하고 출발한 이 드라마의 종착 지점이 어디인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름 없는 의병들’로 의미화 되는 그들이 과연 유진 초이나 고애신, 김희성과 쿠도 히나, 구동매처럼 어쩌다 역사에 가담한 인물들일까. 〈미스터 션샤인〉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들은 이성의 언어가 아니라 내면을 한껏 뜨겁게 만드는 정념의 언어들로 발화한다. 그들은 이성보다 감정에 이끌리고 자신이 느낀 것에 대해 감성적으로 반응하며 마음의 교환을 통해 행동을 추진 한다.<sup>23)</sup>



23) 양근애, 〈남만이라는 정념과 역사의 변주〉, 『호모 쿨투랄리스』,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9.1.10. [http://peaceinstitute.hanyang.ac.kr/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51&page=2](http://peaceinstitute.hanyang.ac.kr/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51&page=2)(2020.4.12. 확인)



〈장면 4: 21회 18:03~21:26〉

유진: 안전하게 입국할 최선의 방법이오. 미국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성  
을 따르오. 일본 입국시 귀하의 이름은 애신 초이요. 이 반지의  
의미는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나의 아내라는 표식이오. 서양에서  
는 보통 남자가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정중히 청혼을  
하오.

당신이 나를 꺾고 나를 건너 제 나라 조선을 구하려 한다면 난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당신 손에 꺾이겠구나 알 수 있었다고. 이  
리 독한 여인일 줄 처음 본 순간부터 알았고 알면서도 좋았다고.  
무릎은 끓은 걸로 합시다. 미안해하지 말고. 이건 내 선택이니.  
이틀 후에 출발이오. 역에서 봅시다.

21화에서 'love'의 'o' 자리를 반지로 채우고 그 반지를 가져 간 손이

'love'를 'live'로 만드는 장면(〈장면4〉)은 이 드라마에서 'love'의 문제가 곧 'live'의 문제라는 점을 역설한다. 로맨스를 위해 역사가 변주되고 로맨스를 통해 역사가 해석되면서 내면을 가진 개인은 공적 주체로 호명된다. 유진 초이와 고애신의 '러브스토리'는 조선의 운명을 건 '히스토리'로 변모하는 것이다. 이 장면을 통해 〈미스터 션샤인〉이 역사와 로맨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미스터 션샤인〉이 역사드라마로서의 정체성을 의식하면서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재현할 때, 허구적 인물인 유진 초이와 고애신의 서사가 낭만적으로 코드화 된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돌출된다는 점이다. 김은숙 작가의 독특한 대사 처리 방식과 이병헌과 김태리 배우를 둘러싼 대중들의 반응 등, 드라마 외적인 소비 방식은 역사드라마 재현과 향유의 현재적 해석의 틈새를 열어준다.

사랑이 아니라면 백정과 노비와 여인과 이름 없는 백성들을 구하는 마음을 어떻게 그려낼 수 있겠냐고 항변하는 것일까. 〈미스터 션샤인〉은 그 마음을 낭만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역사의식을 애국심이라는 단일한 감정으로 봉합한다. 이렇게 발생한 역사효과가 겨냥한 수신지가 3.1 운동 100주년 시점의 현재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 드라마에서 고종은 무능했으나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크고 부끄러움을 아는 왕으로 등장한다. 고종 황제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논쟁적인 상황에서 고종의 애국과 의병의 애국을 구분하지 않은 맹점<sup>24)</sup>은 더 날카롭게 성찰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대 초기 의병들의 활동과 개화계몽의 추진과 반제국 운동을 같은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당시 역사의 실체적 진실을 가린다. 역사드라마의 결말이 미지의 미래로 열린 것이 아니

---

24) 김현주, 〈미스터 션샤인 (2): 애국 서사로의 귀결〉, 『한국역사연구회 - 영상으로 보는 역사』, 2018.10.14. <http://www.koreanhistory.org/6795>(2020.4.12. 확인.)

라 연속된 또 다른 역사적 사실과 만난다는 점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

이성을 교란하는 정념의 세계로부터 표면으로 솟아오른 감정의 언어가 역사를 해석할 때, 지나온 실패한 역사에 대한 차가운 질문 대신 과거를 회상하기 위한 뜨거운 이미지만 대중들의 뇌리에 각인되는 것이 아닐까. 개인의 정념에 대한 반응은 도덕적 속성을 지닐 가능성이 있지만, 정념 자체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것은 아니라는 견해<sup>25)</sup>를 상기한다면, 이 드라마의 결말이 예비하고 있는 애국이 도덕적 차원의 봉합이며 텅 빈 기호일 수 있음을 우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드라마는 왜 로맨스를 필요로 하는가. 한국 드라마의 중핵이 로맨스라는 말에 이견을 달기 어려울 만큼, 로맨스는 드라마의 서사를 자연시키고 연속시키며 시청자를 추동하는 힘이 된다. 사랑과 연애의 서사가 지닌 보편성과 낭만성은 역사드라마에서도 예외 없는 역할을 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역사드라마에서 로맨스는 가장 사실(fact)에서 먼 자리에서 리얼리티의 환상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개인의 내밀한 감정과 욕망은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행간에 상상적으로 존재한다. 역사드라마에서 로맨스는 현재의 시대적 감정구조와 정동을 통해 과거의 역사를 소환하는 역할을 한다. 사랑과 연애의 서사는 개별적인 한 인물이 역사적 인물로 변화하는 과정의 촉매로 작동한다.

〈미스터 션샤인〉은 로맨스를 통해 지나온 역사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려는 욕망을 보여준다. 그 욕망은 과거의 의미 있는 역사를 문화적 기억으로 간직하고 싶은 현재의 대중을 향하고 있다. 역사 재현물은 허구성과 사실성 사이에서 어디까지나 유동적이며 ‘과거성을 연기하는 현대의 주체’, 그리고 ‘그들의 동시대성과 연기로 표현된 역사성’<sup>26)</sup>만 가능하

---

25) 이상일, 「정념의 도덕적 속성에 관한 연구」, 『철학논총』 86, 새한철학회, 2016 참조

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미스터 션샤인〉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바로 역사드라마에 반영된 무의식일 것이다.

## 5. 나가며

지금까지 〈미스터 션샤인〉에 나타난 ‘연애’와 ‘애국’의 결합 양상을 통해 역사드라마는 왜 로맨스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시론적 질문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역사드라마에서 사실성은 기록된 역사를 통해 확보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실제 역사로 인식하게끔 하는 힘은 드라마적 개연성과 진실성에 의해 좌우된다. 역사드라마에서 로맨스는 역사적 사건에 가담한 인물의 서사를 중층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하며 개인의 내밀한 감정적 사태를 공동체의 문제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자주 활용되는 장치이다.

〈미스터 션샤인〉은 로맨스를 전면에 내세우며 역사적 소용돌이에 휘말린 인물들의 관계와 감정을 유려하게 펼쳐, 타자에 대한 사랑이라는 감정이란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이다. 시청률과 화제성을 동시에 잡은 이 드라마는 마지막 회에 등장하는 의병 사진이 실제 국사 교과서에 실린 의병 사진과 흡사하다는 점에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역사효과를 발휘한다.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치와 정부를 향한 양가적 감정, 그리고 주권자로서 지닌 비판 의식을 고려해 볼 때, 이 드라마는 로맨스라는 대중에게 친숙한 문법을 통해 경계에 선 인물의 고뇌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비극적 사

---

26) 제롬 드 그루트, 『역사를 소비하다』, 이윤정 역, 한울아카데미, 2014, 365쪽.

랑에 대한 감정과 실패한 역사에 대한 감정이 동일한 정념을 발휘한다  
는 점을 간파하여 대중들이 역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신분의 격차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차이를 지닌 인물들이 자기부  
정성을 통해 사랑의 완결을 유예시키는 과정은 역사에 가담한 인물들이  
통치의 명분과 정치적 주체화 사이에서 미끄러지는 양상과 다르지 않다.  
구한말 일본 제국주의의 그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조선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미스터 션샤인〉은 각기 다른 신분과 사연을 지닌 인물들  
이 어떻게 애국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는지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작동하는 연애와 사랑의 서사는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에 익숙  
한 많은 시청자들을 역사를 주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역사드라마로서 〈미스터 션샤인〉이 지닌 한계도 명백하다. 고  
종 관련 오류는 물론이고 실제 역사를 강하게 의식하면서도 역사적 사  
건을 편의적으로 재배치한 점, 실제 의병 활동을 재현할 수 있었음에도  
애국이라는 추상적인 이미지로 의병의 모습을 그려낸 점, 여성을 정치  
적 주체로 설정하고 있으나 결국 보호의 대상으로 환원시킨 점, 그리고  
인물들이 지나치게 감정에 경도 되어 역사의식이 희박하게 드러난 점  
등이 그것이다.

로맨스와 역사를 해석하는 정치적 관점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 이  
글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역사드라마가 로맨스를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김은숙 작, 이응복 연출, 〈미스터 선샤인〉, tvN/넷플릭스, 2018.7.7-9.30.  
<http://program.tving.com/tvn/mrsunshine>

### 2. 논문과 단행본

- 니클라스 루만, 『열정으로서의 사랑』, 정성훈·권기돈·조형준 역, 새물결, 2009.
- 양근애, 『TV 드라마 〈대장금〉에 나타난 ‘가능성으로서의 역사’ 구현 방식』, 『한국극예술연구』 28, 한국극예술학회, 2008, 309-343쪽.
- 에바 일루즈, 『감정 자본주의』, 김정아 역, 돌베개, 2010.
- 오사와 마사치, 『연애의 불가능성에 대하여』, 송태욱 역, 그린비, 2005.
- 윤석진, 『2000년대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장르 변화 양상 고찰 1』, 『한국극예술연구』 38, 한국극예술학회, 2012, 301-323쪽.
- \_\_\_\_\_, 『2000년대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장르 변화 양상 고찰 2』, 『비평문화』 48, 한국비평문화학회, 2013, 235-279쪽.
- 이다운, 『김은숙 텔레비전드라마의 대중 전략 연구』, 『한국언어문화』 65, 한국언어문화학회, 2018, 197-228쪽.
- 이상일, 『정념의 도덕적 속성에 관한 연구』, 『철학논총』 86, 새한철학회, 2016, 259-281쪽.
- 이영미, 『〈미스터 선샤인〉 맥락 잡기』, 『황해문화』 101호, 2018, 268-275쪽.
- 이정우, 『멜로드라마, 도덕규범과 감정을 조율하는 근대적 상상력의 역설』, 『대중서사연구』 25(1), 대중서사학회, 2019, 9-54쪽.
- 정혜경, 『2010년대 멜로드라마에 나타나는 국가와 개인의 감정구조』, 『대중서사연구』 25(1), 대중서사학회, 2019, 123-161쪽.
- 제롬 드 그루트, 『역사를 소비하다』, 이윤정 역, 한울아카데미, 2014.
- 조미숙,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주제의식 연구』, 『한국예술연구』 27,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20, 5-26쪽.
- 주창윤, 『〈미스터 선샤인〉, 역사의 서환과 재현방식』, 『한국언론학보』 63(1), 한국언론학회, 2019, 228-252쪽.
- 피터 브룩스, 『멜로드라마적 상상력』, 이승희·이혜령·최승연 역, 소명출판, 2013.

Cannadine, David (ed.), *History and the media*,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07.

### 3. 기타자료

- 강명석, 〈‘미스터 선샤인’, 결국 김은숙의 드라마〉, 『아이즈ize』, 2018.7.25.  
(<https://www.ize.co.kr/articleView.html?no=2018072423047218533>)
- 김현주, 〈미스터 선샤인 (1): 계급과 민족의 교차로를 넘나드는 21세기형 신소설 서사〉, 『한국역사연구회 영상으로 보는 역사』, 2018.9.17. (<http://www.koreanhistory.org/6726>)
- \_\_\_\_\_, 〈미스터 선샤인 (2): 애국 서사로의 귀결〉, 『한국역사연구회-영상으로 보는 역사』, 2018.10.14. (<http://www.koreanhistory.org/6795>)
- 민주연구원, 〈이제는 선샤인 시대, ‘미스터선샤인’으로 읽는 시대코드〉, 『민주연구원 문화비전포럼 공개토론회 자료집』, 2018.10.18. ([http://www.idp.or.kr/dataRoom/korea.php?table=forum&search=&field=&cate=&mode=view&sno=15&b\\_idx=278&](http://www.idp.or.kr/dataRoom/korea.php?table=forum&search=&field=&cate=&mode=view&sno=15&b_idx=278&))
- 양근애, 〈낭만이라는 정념과 역사의 변주〉, 『호모 쿨투랄리스』,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9.1.10. ([http://peaceinstitute.hanyang.ac.kr/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51&page=2](http://peaceinstitute.hanyang.ac.kr/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51&page=2))
- 〈‘미스터 선샤인’ 보는 역사학자 “안타깝다”〉, 『노컷뉴스』, 2018.7.11.
- 〈‘석호필’ 밀리, ‘온에어’ 드림팀 차기작 주인공 물망〉, 『아시아경제』, 2008.5.16.

## Abstract

Why Does Historical Drama Need Romance?

-Focused on the Television Drama *Mr. Sunshine*

Yang, Geunae(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importance of documented fact has weakened in historical dramas, the combination with other genres has become prominent. By reviewing the way romance is dealt with in historical dramas, this research examines how the properties of historical events adopted by historical dramas are related to the motif of love, and how the narrative of love and romance contributes to the historical effects, with a focus on the television drama *Mr. Sunshine*.

*Mr. Sunshine* is the first historical drama written by Kim Eun-sook, combining deliberately rearranged history with the writer's unique grammar of romance. The failed resistance movement of the righteous army in the drama is matched with the love that cannot be achieved based on self-negation. The drama, which deals with the tyranny of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independence of Joseon, fictionalizes key characters and events, transforming the desire of love into the passion of patriotism. Romance in *Mr. Sunshine* serves as a catalyst for emphasizing the tragedy of historical events and reconstitutes cultural memories.

In historical dramas, the fictional plot of romance leads viewers to reflect on human life in history that flows from the past to the future. How does an individual's inner feelings contribute to the historical representation?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as it is the first attemp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historical drama and romance in various ways.

(Keywords: Historical Drama, Romance, *Mr. Sunshine*, Historical Effect, Self-negation of Romance, Cultural Memory, Passion, Structure of Feeling, Nation, Patriotism)

논문투고일 : 2020년 4월 17일

논문심사일 : 2020년 5월 5일

수정완료일 : 2020년 5월 13일

제재확정일 : 2020년 5월 15일